

### 오순절 후 여덟번째 주일 예배

#### THE WORSHIP SERVICE OF 8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3년 7월 23일 오전 10시

인도: 정재흥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1 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통 46)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7 번 (시편 13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권영수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히브리서 9:11-22</b>	조문희집사
찬 양 Anthem	“예배합니다”	찬양대
설 교 Sermon	<b>“내 삶의 중심” (Center of my Life)</b>	정재흥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보혈을 지나”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259 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통 193)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정재흥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세주가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실 뿐아니라 우리가 한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했던 모든 말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언어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은 생명을 살리는 샘이 되지 못했고, 허망하고 사사로운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침묵하기보다 불필요하고 진실되지  
 못한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줄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데 인색했으며,  
 오히려 은근히 비방하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남을 격려하는  
 대신 나의 상처로 인해 독을 내 뱉는 말들을 생각없이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 대신 불평과 원망의 열매만  
 더 많이 맺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여호와여,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며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목상이 주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 141:3, 시 19:12b)

####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개역개정 히 9:22)

“In fact, the law requires that nearly everything be cleansed with blood, and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NIV Hebrews 9:22)

####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7/23 (주일)	7/24 (월)	7/25 (화)	7/26 (수)	7/27 (목)	7/28 (금)	7/29 (토)
	삿6	삿7	삿8	삿9	삿10-11:7	삿11:12-40	삿12
본문	행10 렘19 막5	행11 렘20 막6	행12 렘21 막7	행13 렘22 막8	행14 렘23 막9	행15 렘24 막10	행16 렘25 막11

####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7/26 수 오후7:30)	룻기 (9) – “삶의 전화위복” (룻 4:1-22)
토요 새벽기도회(7/29 토 오전6:30)	데살로니가전서 (9) – “신앙의 3대 경건”(살전 5:12-28)

#### 지난 주일(7/16) 말씀

##### “생명의 샘” (잠언 10:11-13, 18-21)

입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영향력이 큰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한 남을 헐뜯고 저주하며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입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입을 조심해야 하고 말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1. 생명의 샘입니다.**(11 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의인의 입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주님을 찬양하는 입이 되어 <생명의 샘>이 되어야 합니다. **2. 지혜가 있습니다.**(13 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고,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해야 합니다. **3. 입술을 제어할 줄 압니다.**(19 절) 이것은 침묵할 줄 알아야 하고,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아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실수를 할 바에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더 좋기에,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13 절에 “이런 때에 지혜자는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고 했습니다. **4. 여러 사람을 교육합니다.**(21 절) ‘교육한다’는 말에는 ‘먹여 준다.’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영혼의 좋은 음식이 되어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먹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입은 어떤 입일까요? **1. 독을 머금었습니다.**(11 절) 그 입에는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 입은 남을 해치기 위해 독설을 품고, 독한 말로 저주하며, 남을 아프게 합니다. **2. 남을 증상모략 합니다.**(18 절) 훼방하고 남을 헐뜯고 비방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훼방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3. 말을 많이 합니다.**(19 절) 말을 많이 하다보면 허물이 있기 마련이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입은 축복을 말하고, 악인의 입은 저주를 말하는데, 그 말하는 그대로 자신이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입은, ① 기도해야 합니다. 시 141:3 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는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② 자신의 말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에게 구제적으로 자백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죄송합니다.>와 <감사합니다.>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 설/교/ 메/모